

돌봄통합지원법 안착을 위한 과제



전 용 호 교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집과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돌봄을 추진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바야흐로 본격적인 시행의 닳을 올리고 있다.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이 법안의 취지는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산이나 인력 확충을 넘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성숙한 민관협력’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본질적으로 철저한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다. 서울 강남의 도심형 독거노인과 전남 해남의 농촌형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결코 같을 수 없다. 대도시와 농어촌, 산업단지와 주거밀집지역은 인구 구조부터 의료 접근성까지 판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지침을 내리기보다는, 지자체가 지역 고유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할 때 비로소 제도는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자치 역량과 준비 상황을 살펴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통합돌봄이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중앙의 권한 이양과 지방의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우선, 중앙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중앙 부처는 지방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예산 배분과 사업 승인, 그리고 성과 평가 등을 수단으로 지자체를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재정 지원을 근거로 제시되는 각종 세부 지침들은 지자체의 운신의 폭을 좁힐 우려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세 또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논치를 보며 책임을 미루는 이른바 ‘핑퐁 게임’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모델을 고민하기보다는, “중앙정부가 더 자세히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달라”고 외치는 현상은 지방자치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중앙의 하달만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주도적인 의지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관계를 수직적 관리 구조에서 수평적 협력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그간 관(官)은 재정과 지도·감독권을 독점하며 민간 공급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 즉 ‘갑(甲)’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통합돌봄은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결코 완수할 수 없는 과제다. 요양기관, 병원, 복지관, 사회적 경제 조직은 물론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 내 다양한 공공 및 민간 공급 주체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제 공무원들은 권한과 권력에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및 공급자들과 우호적이고 신뢰 깊은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민간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협력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네트워킹 리더십’을 발휘해야 통합돌봄의 실적을 도출할 수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다양한 현장의 공급 주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지역 맞춤형 모델을 만들어내도록 독려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나누는 것을 넘어, 관(官)이 가진 권한을 민(民)과 함께 나누고 소통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공공이 먼저 손을 내밀고 민간과 수평적으로 협력할 때, 돌봄통합지원법은 비로소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넥스트케어(돌봄혁신허브) 대표

시장을 설득할 시간



기자 수첩

차 현 정
(산업부)

스마트폰 시장의 승부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더 많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 시장에서 얼마나 확실한 존재감을 확보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

지난해 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평균판매가격(ASP)은 처음으로 400달러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매출도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하량 증가율은 5%에 머물렀으나 소비자들의 고가 모델 선택 비중 확대에 따라 평균판매가격이 오르며 전체 시장 규모를 키운 것이다.

기술 평가만 놓고 보면 최근 몇 년간 인

공지능(AI) 경쟁에서는 삼성전자가 경쟁사 대비 앞섰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생성형 AI 도입 속도도 빨랐고 기기 내 기능 확장에서도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소비자의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을 보면 이야기는 다소 달라진다.

애플의 평균판매가격은 분기 기준 처음으로 1000달러를 넘어섰고 매출 점유율 역시 크게 확대됐다. 기술 경쟁의 속도와 시장의 선택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삼성에는 스마트폰 출하량을 늘렸으나 보급형 비중 확대 속에서 평균판매가격은 오히려 낮아졌다. 반면 애플은 고가 모델 중심 전략으로 단가를 끌어올렸다. 판매량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수익 구조는 확연히 달라졌다. 프리미엄 시장에서 ‘가격을 올려도 선택받는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올해는 또 다른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 애플의 첫 폴더블폰 참전이다. 그동안 폴더블 시장은 삼성이 주도자였다. 그러나 애플이 가세하는 순간 폴더블폰은 프리미엄 시장의 새로운 기준으로 재정의 될 것이다. 시장의 눈높이 역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기술적 우위는 분명 중요하다. 시장을 여는 힘도 기술에서 나온다. 그러나 소비자를 얼마나 설득하느냐 또한 관문이다. AI도, 폴더블도 같은 질문으로 돌아온다. 먼저 구현했느냐가 아니라 일상에서 얼마나 체감되는 가치로 이어지느냐다. 제품 가격이 높아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완성도와 경험을 보여줄 때 기술은 비로소 시장의 선택으로 이어진다.

/hyeon@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2월 11일 (음 12월 24일)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쥐

48년생 쥐의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르니 가슴만 아픕니다. 60년생 무리한 확장보다는 실속을 더 챙기세요. 72년생 가까운 사람이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84년생 오랜 친구와 연인운이 있습니다.

 소

49년생 노력이 빛을 보고 성공하게 됩니다. 61년생 처음은 어렵지만 갈수록 좋아집니다. 73년생 거래나 소송은 미루어야 승산이 있습니다. 85년생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니 기쁜 하루입니다.

 호랑이

50년생 만족할 만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62년생 신중하게 추진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74년생 욕심을 버리면 크진 않아도 순탄하게 이루어집니다. 86년생 의연한 태도를 유지해야 길하게 됩니다.

 토끼

51년생 작은 것은 양보하고 화해하는게 좋습니다. 63년생 내 생각대로 의연하게 대처하세요. 75년생 배우자나 동업자를 잘 돌보아 주면 복이 옵니다. 87년생 진로문제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

52년생 원하던 곳에 투자하면 소득이 있습니다. 64년생 경쟁자가 많으니 철저히 준비하세요. 76년생 상대에게 먼저 연락이 오면 용서해 주세요. 88년생 실패하더라도 다음을 위해 포기하지 마세요.

 뱀

53년생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65년생 사업의 흐름이 바뀌니 새로운 것이 좋아 보입니다. 77년생 방향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89년생 많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면 복이 있습니다.

 말

54년생 뜻밖의 귀인이 도움을 줍니다. 66년생 지금보다는 다음 기회를 기다리세요. 78년생 뜻대로 일이 안풀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90년생 이성운이 좋더라도 너무 늦게 귀가하지는 마세요.

 양

55년생 아랫사람을 챙겨주면 도움을 받게 됩니다. 67년생 희망하는 일이 잘 이루어집니다. 79년생 혼자 도모하지 말고 여럿이 함께 의논하세요. 91년생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몸부터 돌보세요.

 원숭이

56년생 여행이나 출장은 뒤로 미루는게 좋습니다. 68년생 뜻대로 안풀리니 변화가 필요합니다. 80년생 힘들더라도 계속 유지하면 곧 기회가 찾아 옵니다. 92년생 외출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닭

57년생 큰 일을 하려면 작은 근심은 버려야 합니다. 69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지만 바라던 대로 이루어집니다. 81년생 모든 것이 길하니 운이 좋습니다. 93년생 운도 흰하고 마음도 흰합니다.

 개

58년생 별 것 아니라고 지나치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70년생 욕심만 줄이면 만사형통입니다. 82년생 겸손하게 처신하고 내실을 다지는게 좋습니다. 94년생 소신을 굽히지 말고 계속 추진하세요.

 돼지

59년생 전화위복을 실행하는 하루입니다. 71년생 돈과 시간만 낭비하니 싸우지 말고 화해하세요. 83년생 일보다는 건강을 먼저 챙기세요. 95년생 너무 큰 꿈보다는 현실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김상회의四季

이대도강, 버릴 것은



이대도강은 36계 병법 가운데 열한 번째 전략으로 자두나무가 복숭아 나무를 대신해서 말라 죽는다는 뜻이다. 글자 자체만 보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희생한다는 의미로 냉정한 얘기처럼 보인다. 의미는 무작정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니. 전체를 살리기 위해 일부를 내려놓는 선택 그리고 지금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구분하는 판단에 관한 전략이다. 이대도강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전략이지만, 일반 사람들의 현실적인 생활과도 깊이 닿아 있다. 누구든지 살아가며 모든 것을 동시에 지킬 수 없다. 체력 시간 인간관계 업무 사랑 돈 권력 등 무엇을 먼저 선택하는 게 좋을지 때 순간 결정해야 한다. 팔자학은 이런 점에서 이대도강을 이해하는 데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사주에서 오행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를 본다. 오행이 고르게 강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는 데 가장 필요한 기운인 용신이 전략의 복숭아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람의 기운을 돋우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존재이다. 용신을 살리기 위해 어떤 기운을 내려놓을 것인지 선택하는 게 명리학에서 말하는 이대도강의 방식이다. 이대도강은 운의 흐름에서도 나타난다. 인생을 대운과 세운으로 나누는데 대운은 10년 단위의 큰 흐름이고, 세운은 매년 바뀌는 작은 흐름이다. 어떤 대운에서는 사회적 성취가 잘 풀리지만, 인간관계나 건강은 나빠질 수 있다. 이때 무엇을 희생하는 게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이대도강 전략과 사주학은 당장의 손해가 오히려 더 큰 것을 살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자두나무이고, 무엇이 복숭아나무인지를 볼 줄 아는 눈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7					2	4
9					3		7	
				6			9	
	3							2
4							8	
	8			7				
	5		8					3
6	4					7		8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레코드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1	2	9	8	2	6	7	9
8	9	2	6	7	8	1	9	2
6	9	7	9	2	1	2	8	8
2	8	9	2	1	8	9	6	7
1	8	9	7	6	9	8	2	2
2	7	6	8	9	2	9	8	1
9	6	1	2	9	7	8	2	8
9	2	8	8	2	9	7	1	6
7	2	8	1	8	6	2	9	9

2	2	7	9	9	1	6	8	8
6	8	9	8	2	2	7	9	1
9	1	8	7	8	6	2	2	9
2	9	9	6	9	7	8	1	2
8	2	8	2	1	9	8	7	6
1	7	6	8	8	2	9	2	9
7	8	2	1	2	9	9	6	8
8	6	1	9	7	8	2	9	2
9	9	2	2	6	8	1	8	7